

GIST·전남대, 차세대 의사과학자 공동 양성한다

공동 기획 'G-STAR 프로그램', 과기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선정
4년간 34억원 정부 지원...바이오 메디컬 융합인재 60여명 육성 본격화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 의과대학이 의사과학자와 바이오 메디컬 융합인재 양성에 나선다.

지난 30일 GIST와 전남대에 따르면 두 대학이 공동 기획한 'G-STAR(Global Scientist Training for Advanced Research) 프로그램 개발' 과제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됐다. 이 프로그램의 과제는 바이오메디컬 융복합 인재 양성이다.

이에 따라 두 대학은 올해부터 4년간 총 34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 60명 이상의 의사과학자 및 바이오메디컬 융합인재 육성을 본격화 한다.

GIST 의생명공학과 김재관 교수가 주관연구기관 책임자를 맡았다.

'G-STAR 프로그램'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할 차세대 융합형 인재, 임상과 기초과학을 아우르는 의사과학자(physician-scientist) 양성을 목표로 기획된 교육·연구 통합 플랫폼이다. '의사과학자'(MD-Ph.D)는 의사와 과학자 두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고 임상 지식과 기초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활용해 질병을 연구하는 과학자다.

두 대학은 한국형 의사과학자 양성 모델을 정립한 뒤 이를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장해 K-바이오의 세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 의학은 기초과학과 임상의학 간의 긴밀한 연계를 필요로 하지만, 국내에는 연구 중심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매년 3300여명의 의학계열 졸업생 중 기초의학 연구 분야로 진출하는 비율은 1%도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GIST와 전남대학교는 의료 현장의 통찰력을 과학 연구로 연결하고, 연구 성과를 다시 환자 치료로 이어 주는 '양방향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G-STAR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GIST는 AI·의생명공학·우주의학 등 첨단 융합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는 실증 중심의 교육 기반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은 면역치료 및 정밀의료 분야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연구 기반을 갖추고 있다.

G-STAR 프로그램은 의사과학자-의공학자-의생명과학자 간 융합교육 학점 교류 및 공동학위 운영, 미니학위 과정 개설, 해외연수 및 성과 교류회 개최, 6대 특화 분야(의료 AI, 면역치료, 우주의



GIST와 전남대 관계자들이 지난 5월 바이오 메디컬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한 G-STAR 프로그램 준비모임을 갖고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GIST 제공〉

학, 바이오인포메틱스, 뇌과학, 디지털 헬스케어) R&D 프로젝트 수행, 실험실 인턴십, 프로젝트 기반 연구 참여 기회 제공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참여 학생들은 GIST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미니학위 과정을 통해 의과학 및 의생명공학 분야의 핵심 이론과 실습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 내역은 학위증명서 또는 성적표에 표기될 예정이다.

또한, GIST와 전남대 두 대학에 각각 전담 사무

국을 설치해 학사 및 연구 행정의 통합 운영을 도모하고, 참여 학생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진로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GIST 의생명공학과 김재관 교수(주관연구기관 책임자)는 "G-STAR 프로그램은 의학과 과학, 공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미래 의료 혁신을 이룰 핵심 인재 양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채용 교수(공동연구기관

책임자)는 "이 사업은 그간 숙원 과제였던 의과학자 양성의 실현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의학 연구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GIST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은 2010년부터 공동 연구와 교육 협력을 지속해 왔으며, 이번 G-STAR 프로그램을 계기로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제2기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위원들이 위촉식 후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교육청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출범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

지역과 함께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는 '제2기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30일 영암 호텔현대 바이라한에서 '제2기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향후 2년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민관산학 협력 과제들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는 전남교육 주요 정책 방향을 자문하고, 교육과 일자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 및 교육현안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되는 협치기구다. 공공기관, 학부모, 대학, 기업

등으로 구성되며, 전남도교육청과 22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2023년 7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위원 위촉 및 출범 행사에는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해 지역사회 각계 민관산학 위원 40명이 참석해, 위촉장 수여와 운영 방향 공유, 협력 방안 논의 등 함께하며 공동의지를 다졌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1기 위원회가 전남형 교육자치의 토대를 닦았다면, 2기 위원회는 현장과 더 깊이 소통하며 실천력 있는 협력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글로벌 전남교육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산학의 힘이 절실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전남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대중 기자 bigkim@kwangju.co.kr

동강대 창업보육센터, 23년 연속 '최우수' 평가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 창업보육(BI)센터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23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사진〉

지난 30일 동강대에 따르면 동강대 BI센터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260여 개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운영평가에서 23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지난 1999년 12월 개소한 동강대 BI센터는 매년 발표되는 경영·운영평가에서 사업 운영실적, 인프라·인력 전문성, 유관기관과 협력 성과 등 모든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동강대 BI센터는 올해도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펼쳐며 스타트업(Start-Up) 경쟁력 확보, 예비 CEO 육성,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다.

먼저 동강대는 중소벤처기업부(한국창업보육협

회)의 '2025년 특화역량 BI 육성 지원사업' 광주지역 유일의 지역 거점형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광주대·동신대·순천대 등 3개 대학과 함께 BI센터 입주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동강대 BI센터 내 기업 뿐 아니라 광주·전남지역 대학과 유관기관 입주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폭넓은 지원을 해왔다.

또 동강대 BI센터는 광주북구청과 협력해 광주광역시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특화사업(생활 혁신 Enjoy program in 광주)'도 수행 중이다.

특목 투는 아이디어를 가진 광주지역 내 5년 이하의 생활혁신 창업기업들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2018년부터 8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동강대는 2015년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해 마련한 교



내 창업동아리 지원 사업을 11년째 이어가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신대-우즈베크와 UBS·글로벌 교육 협력 협약

동신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 UBS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교류 협력에 나선다.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는 최근 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UBS(University of Business and Science, 설립자 Sultonov Omon)와 글로벌 교육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2+2 복수학위제 운영,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동연구 추진 등 실질

적인 교육 교류를 기반으로 상호 발전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다.

두 대학은 '2+2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를 진행해 성과를 도출해냈다.

글로벌경영, 호텔투어리즘, IT, 전기공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대상으로 1~2학년은 UBS에서, 3~4학년은 동신대학교에서 수학한 후 두 대학에서 복수학위를 받는 방식

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영어와 한국어 트랙으로 나뉘어 집중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추후 협의를 통해 적절한 선발 기준과 장학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 연구 및 조인트 프로젝트 확대, 교수 및 연구자 교류, 의학·과학 분야 협력 등으로의 연계 가능성도 적극 검토했다.

동신대 이주희 총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복수학위제, 교환학생, 공동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진행해 양교가 함께 성장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의 모델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스데 해볼래?

알바 댄스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금융감독원
KOREAN FINANCIAL SUPERVISOR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손해보험협회
Korea Fire Insurance Association

IGFA 보험GA협회
보험사기방지대응지원단